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3 년 12월 발행 (제 44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세지 '그리스의 뿔' by 예레미야

◎간증 '알아뵈더라면' E3

◎알림 코너 '계시록 세미나'

<권두 메세지>

'그리스의 뿔' by 예레미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뿔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8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자리매김>

원래 다니엘서는 어떤 서적인가요? 이 서적은 분명 종말의 날, 환난의 날을 대비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한 서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 종말의 날에 관한 중요한 힌트,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아래에서 동상에게 절하지 않아 환난을 당하는 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다음의 계시록 심판의 날, 짐승의 상을 한, 즉 적그리스도는 인간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는 날, 즉 대환난의 날을 이야기하며 힌트를 주는 설명입니다.

계시록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환란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상, 즉 적

그리스도라는 개인을 숭배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그 정답은, 다니엘서의 세 사람의 신앙의 용사처럼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양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당신이 세운 금의 동상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라며 동상 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 날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의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나타나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시대의 우리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때, 고난을 만날 것이지만, 그 환난 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개입 즉 재림이 있다, 는 것이 이 다니엘서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휴거설 즉 환난 전이다 환난 중이다라는 그 가르침은 다니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른 반 성경적인 가르침임을 이 장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종말에 관한 중요한 힌트가 이 서적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 본인의 고난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왕 이외의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람인 임금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는데, 환란시대에 있어서도 아마 사람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도가 강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고난의 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기적으로 다니엘을 환난의 날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을 지상에 내려보냈다, 등의 묘사는 이 서적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충실했던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져 그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 굴을 봉하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환난 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이 장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분명하게 종말 성도의 도움은 환난 후에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 전이다 환난 중이다라는 것이 성도는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비(非)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종말의 날의 중요한 테마 또는 문제에 대해 필요한 빛과 해답을 줄 서적입니다.

<그리스의 뿔>

그런데, 오늘의 교과서인 다니엘서 8장부터, 그리스도의 뿔이라는 것을 보고 갑시다.

“다니엘서 8: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장의 특징은 미디어 페르시아에서 종말에 이르는 긴 시대를 모두, 숫양 그리고 숫염소 두 종류의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짐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8장의 모든 기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8장에서 이야기되는 양과 염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일차적 의미는 양은 미디어 페르시아, 염소는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에 계시록에, 겉면에도 속에도 문자가 적힌 두루마리로 묘사되는 것처럼, 겉의 의미뿐만 아니라 속의 의미도 있는 서적이므로,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양은 올바른 기독교인, 염소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인>

양, 염소가 그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25: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서는 양은 그리스도에 붙는 사람, 염소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임을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양, 염소 기술의 속뜻은 양은 그리스도에 붙는 사람, 그리고 염소는 그것을 반대,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은 그 공방의 역사를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장을 차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에 두 뿔을 가진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 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우리는 이전, 이 짐승은 짐승화 한 그리스도 교회이며, 두 뿔은 그리스도 교회의 2개의 커다란 세력, 천주교와 개신교라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 다니엘서의 양도 그리스도 교회, 그 두 뿔은 그리스도 교회의 2대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4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양, 그리스도 교회의 궤진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역사적인 교회의 선교도 먼저 서쪽인 유럽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과 일치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양은 동쪽으로는 나아가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아시아(동쪽)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성령이 금하였다는 사도 행전의 기술과 부합합니다.

사실 복음은 서쪽에 전해져, 아시아, 동쪽은 오랫동안 복음에서 멀리되어 왔습니다. 그 복음, 기독교의 확산은 큰 것이며, 서양을 비롯한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짐승도 그에 맞설 수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은 마음대로 굴며 교만했다." 즉 그리스도 교회는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행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리스도 교회는 그 발전과 함께 세상의 권력도 갖춘 교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황은 세상의 힘을 가지게 세상의 왕보다 더 큰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유럽 국가의 왕

이 교황에게 파문 당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 맨발로 야외에서 서 있었다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은 그리스도 교회의 세상에 있어서의 절대 권력을 말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8: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8:6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런데, 그 양, 그리스도 교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염소 즉, 그리스도가 시작됩니다.

8:7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이 염소, 그리스도가 양, 그리스도 교회를 쳐부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염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알고로는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서양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를 기점으로 하는 서양합리주의, 과학만능주의, 지성주의와 같은 것일까요. 이들 사람의 생각과 지성을 선호하는 그리스 유래의 서양합리주의는 기독교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그것은 기독교를 죽이고 땅에 전복, 즉 세상에 붙을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으로 확산된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그 긴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서양 유래의 합리주의, 과학만능주의, 지성주의에 쓰러져 그 가장 중요한 부분조차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적은 서양 문명을 숭배하는 유럽 사람들에 의해 부정되고 비과학적인 것, 미신으로 배척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그리스 유래의 서양 문명의 영향 아래에서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그리스도의 기적도 비과학적이다 라고 부정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양 유래의 과학원리를 독살한 교황은 진화론은 과학적이므로 부정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비과학적인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파괴 하는 것, 그 근본적인 토대를 파괴 하는 것, 그것은 불교도 이슬람교도 아닌, 그리스 유래의 서양문명이고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지성이라든지를 숭배하는 서양합리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8:8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절의 기술된 '하늘의 사방'은 '4개의 바람', '4개의 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람, 숨 즉 성령에 대한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 서양 문명은 성령의 역사를 저해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며, 서양 유래의 과학만능주의에 종속된 신학교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경시하고 존중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그리스 유래 서양 문명은 4개의 바람, 성령의 역사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8: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개의 강한 뿔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야말로 종말의 주역인 짐승의 나라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가진 짐승의 나라 미국입니다.

이 나라, 미국에 관해 다니엘 8장은, 그 나라 그리스의 후예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말의 짐승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 또한 그 짐승의 국가에 의한 종말의 날의 기독교 파괴법, 그것이, 그리스의 뿔, 그리스의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환난의 날에, 올바른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미국의 논법, 방법, 논거는, 성서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지성과 맞지 않는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과 같은 그러한 논법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활발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적 소수자는 타고난 고유의 성질이며, 죄와 죄악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 된' 성적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것은 비과학적이며,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며, 그의 종교는 광신적인 이단과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따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선언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것은 미국, 짐승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합법적, 합리적, 과학적이다, 이렇게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반대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유래의 과학이나 이성, 지성을 부정하는 이단 종교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점점 더 강조되어, 결국은 모든 교회에서 성경에 따라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는 목사나 교사는 "비과학적인 미신에 열중하는 이단"이라고 취급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되어 동성애자 집회에 반대하고 성경을 기초로 말하는 기독교인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8: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리스의 후예인 미국이 커지고, 그 결과 '천군' 즉 하늘의 기독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신앙을 위협하게 될 것임이 쓰여져 있습니다. "별의 군대 중 몇 가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것을 짓밟는다"고, 곧 하늘의 기독교인을 이 세상에 끌어 떨어뜨리는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되고 있으며, 미국 유래의 TV 프로그램 이니 세상의 풍조이니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 교회에서 성찬식을 U2 등의 세간의 가수들의 발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8: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군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신약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병사라는 뜻입니다. 즉 군대와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장관, 즉 그리스도인의 대장인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닌 왕 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의 끝인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가 그리

스도를 대신하여 전 세계의 교회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공(常供)의 공물, 즉 올바른 메시지는 지워져, 성소의 내부, 즉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 교리, 가르침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8: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그리스도의 뿔의 후예인 미국에 의해 성경과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는 땅에 내던져져, 세상적인 상식이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그리스도가 부활 하는 등 비과학적이며 용납 할 수 없다, 말하자면, 2000년 전 인간이 지금의 세상에 다시 재림한다는 등의 교리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서 제거되는 그런 사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독과 진리에 대한 공격의 논거로서, 그리스 유래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가 크게 사용되는 것을 알아보시다. 다니엘서 8장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즉 염소인 그리스도의 뿔에 의해, 양인 그리스도 교회는 쓰러져 생명을 빼앗겨 간다, 이렇게 말한다 다니엘서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뜻을 실시합니다.

- 이상 -

동성애에 반대하는 도로 메시지를 행하여 체포된 미국인 토니 미아노 씨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실천합시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아니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기 때문에, 간증하겠습니다.

9월 세미나의 간증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시다만, 최근 예배 설교를 통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설명되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의 말씀입니다.

참조 디모데전서 1:13

1: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활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라고 쓰여져 있듯이, 이전의 이른바 신에게 부름 받기 전의 바울은 이 같은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보를 하고 있었습시다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소위 말씀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밀줄 부분에 있는 듯이,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바울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하지만 알고 있었다면, 자비를 받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여야겠다"라고 한마디 톡 말씀했습니다. 그 때 "아하!"라고 재차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역시, 그런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갑자기 후세로 넘어갑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살아 있고 후세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천국에 갔다 왔습시다 라거나, 지옥을 보았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어느나" (잠언 30장 4절) 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 온 것은 그리스도 뿐이므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어떤 것인지? 상상 할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천국과 지옥 (불의 연못)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둘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단지, 현재 성경으로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쓰여진 대로,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육체로 내가 한 행동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 이것도 전에 말씀 드렸습시다, "성경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는 것도 그렇습시다만, 만약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면 엄하게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말씀이나 가르침, 소위 진리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이방인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 심판 받습시다만, 기독교인처럼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도 게다가 실천하지 않은 경우 더 엄격하게 심판 받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는 책이나 인터넷의 문장이나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진리에 접하면서도 말씀을 실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 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에 느낀 것입니다 만, 어떤 의미에서 진리를 보거나 듣거나 한 시점에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인(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서도 뜻을 행하지 않은 하인은 심하게 채찍 받는 것이 누가 복음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알면서도, 응하지 않을 때에 가혹한 처벌을 하나님께 받는 것은 명심하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듣거나 혹은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리에 닿는, 그것은 그것으로 귀중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진리에 도달했다면, 진리대로 걷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장차 올 후세의 세상에서는 취급이 바뀐다는 것을 잘 이해해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날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흡 하나마 기도 속에서 성령의 힘을 받고, 배운 것은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나 실수한 일이 있으면 주로 계시를 받고 즉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받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모두 정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날마다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각각의 판단 이므로 저 따위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지만, 만약 진리를 듣고, 보고, 또는 이해했다면 꼭 실행에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씀도 실천하고 행해 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해 할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평생 동안 계속 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초청될 것이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반대로, 어디까지나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부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의향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의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않거나 거부하는 불신자나 사탄은 후세를 잊지 않습니다. 그대로 "불의 연못(영원한 고통)"에 넣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면 즉시 방향을 바꾸어 나가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사탄과 비기독교인과 함께 "불의 연못"에 넣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무조건 회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한 나라로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사람을 넣거나 넣지 않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결코 반발하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의 말씀에 언제나 따라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3:5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33장 5절

이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이상 -

- ◆ 하나님에 의해 영속을 약속하고 만세일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약속한 다윗 왕조는, 400년의 역사 후 바벨론 포로를 계기로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 ◆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 "다윗은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도달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약속 위반하고 만세일계는 과연 끊어져 버리는 것인가?
- ◆ 바벨론에 의해 다윗 왕조가 실종 된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정도 전의 일이다.
- ◆ 그 무렵, 동쪽의 섬나라에서 만세일계의 왕조가 탄생한다.
- ◆ 이 왕조, 황기 2600년을 자랑하는 만세일계의 천황이야말로 다윗 왕조의 정당한 후계자 아닌가?
- ◆ 인종, 언어, 문화, 습관, 역사, 모든 면에서 천황과 다윗 왕조에는 유사성이 있다.

예레미야의 신간. "천황은 만세일계의 다윗 왕조의 후예이다!"

정가: 1500엔+소비세. 12월 1일 발매.

주문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경고의나팔 출판: fax : 020-4623-5255 메일: truth216@nifty.com